



CISPE의 Microsoft 제소 관련 핵심 요약본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괄 판매, 묶음 판매, 자사 우대 가격 책정, 기술 및 경제적 록인(lock-in)을 포함한 반경쟁적 행위가 시장 지배적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어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유럽 회사들의 선택에 제약이 되고 있다.

특히 Microsoft는 생산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유럽 고객들이 자사의 Azure 클라우드 인프라로 유입되게끔 유도함으로써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 및 IT 서비스 사용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2022년 10월 1일 도입된 최신 Microsoft 라이선스 변경사항은 이러한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 공급자들은 이러한 변경사항이 피해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형식의 묶음 판매와 록인을 도입하여 고객 선택권 박탈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반토막이 되었다. 같은 시장에서 Microsoft의 점유율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던 다른 모든 공급자들을 압도했는데, 우리는 Microsoft가 유럽 공급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800% 이상 성장했다고 여기고 있다.

이 같은 악의적 관행이 계속 용납될 경우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유럽 비즈니스 및 공공 부문 조직들은 원하는 IT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 운용,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이 박탈당할 것이다.

클라우드에 EU와 EU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성장, 디지털 경제, 다른 많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위한 기본 바탕이다. 번창하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들은 유럽의 기술 혁신과 우수성을 신장시키고 클라우드의 전략적 자주권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공급자들은 유럽적 가치를 지지하면서 유럽 시민들에 대한 보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공정하고 탄탄한 경쟁 관행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몇몇 공급자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원하는 IT 공급자를 선택하지 못하게 된 고객들은 물질적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CISPE(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공급자)는 EU 내에 본사와 사업체를 둔 24개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많은 회원사들은 유럽 내 공공 및 민간 부문 고객들에게 고유한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다.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자들은 IT 서비스의 토대를 닦았으며 사실상 모든 고객들은 이러한 인프라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선택을 보장하고 록인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소프트웨어를 공정하게 라이선싱하는 것은 유럽에서 강력하며 경쟁력 있는 IT 서비스 시장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이다.

CISPE는 공정한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원칙을 도입해야만 핵심 부문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유럽 고객들이 클라우드에서 실행하기 원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싱을 위한 모범적 관행을 권장한다면 Microsoft의 반경쟁적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여 해당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불공정하게 높이려는 다른 공급자들의 잠재적인 문제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다.

OVHcloud와 Aruba 등 두 곳의 회원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약관을 악용하여 Microsoft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불공정하게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제소를 이미 마친 상태이다. 대부분의 CISPE 회원사들은 이와 유사한 불공정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CISPE의 이번 제소는 회원사의 기존 제소의 세부사항을 반복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보다는 직접 소를 제기할 만한 자원이 없는 회원사들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리스크를 홀로 견안을 수 없는 회원사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CISPE의 제소는 Microsoft의 불공정 라이선싱 사례가 어떻게 TFEU 102조를 위반하는지를 보여주는 법적 주장과 선례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조사를 개시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조치의 명백한 근거가 되는 필요불가결성과 불공정성 모두에 대한 자세한 법적 분석을 제공한다.

더 궁극적으로 이번 제소는 가능한 접근 방식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상황을 해결하고, 책무 절차 또는 이전의 임의적 해결책에 부재했던 위반 결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침을 통해 신속하며 지속 가능하게 상황을 개선하는 공정한 쉽게 전개 가능한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다.

CISPE는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 공급업체들의 연합이나, 이 제소는 지난 수년간 유럽 전반의 고객들과 함께 면밀하게 개발한 작업 및 도구를 이용하고 촉진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업종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다. CISPE는 고객 대표 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제소가 제시하는 개선책이 될 아이디어와 도구를 개발했다.

따라서, CISPE는 이 제소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해당 개선책이 클라우드 산업 전반의 고객과 공급업체들의 폭넓은 지지를 빠르게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CISPE는 2021년 4월 프랑스의 디지털 리더 연합인 Cigref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공표한 공정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위한 10대 원칙이 IT 섹터에 대한 경쟁 원칙의 복구를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번 공표 이후, 이 원칙은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영국,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있는 고객 조직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적절한 이행, 준수, 모니터링이 동반된다면 이 10대 원칙은 최초 제소에서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시 한번 고객 및 공급자 조직들과 면밀하게 협력하여, CISPE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위한 10대 원칙의 준수를 위해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에 대한 독립적이며 공정한 감사를 촉진하는 관리 프레임워크를 고안했다.

이 관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독립적인 제3자 선정을 통해 모든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라이선스 약관을 효율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이러한 계약이 IT 부문의 공정한 경쟁에 유익한지 아니면 해로운지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

이 같은 감사가능한 관리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반 결정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례 또는 지침의 해당 피고가 제안한 모든 개선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제소의 일환으로 CISPE는 관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Microsoft가 최근(8월 29일) 블로그 포스트에 제안한 라이선스 약관과 10월 1일 새 라이선스 이행에서 적용하는 새 약관에 대한 변경사항을 평가했다. 이는

관리 프레임워크의 적용 사례의 예시로서 실제 사례에서의 그 유용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는 Microsoft의 제안이 최초 제소에서 원고가 제시했던 고객 및 공급자의 손해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하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 활성화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위한 10대 원칙 이행은 즉각적인 개선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시장 기반 솔루션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CISPE는 이 10대 원칙에 위배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약관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유럽 감시 기관의 창설을 지지한다. 이처럼 독립적인 주체가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약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어떠한 공급업체도 새로운 불공정 행위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 원칙에 기반하여 실시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약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는 유럽 고객들에게 이러한 약관이 공정한 선택, 투명한 경쟁, 활력 넘치는 시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감시 기관의 감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공급업체들은 기본 및 비례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10년, 자체 성장 및 복구 프로그램, 그리고 기술 시장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의 중요성과, 지배적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제 명확해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CISPE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DMA(디지털 시장법)를 업데이트하여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갖춘 Microsoft와 같이 특히 특정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고수 중인 게이트키퍼들이 자사의 핵심 서비스 플랫폼을 악용하여 경쟁자들을 차별하고 자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우대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추가로 제안한다.

따라서 CISPE는 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게이트키퍼들의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사례와 관련 자사 우대 가격 정책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 법률 양식의 DMA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이 제소는 CISPE 이사회의 권한 이임과 전체 회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CISPE 회원들을 위협하는 반경쟁적 상황에 대한 개선책을 빠르게 찾아 구현하는 것을 그 의도로 한다.

CISPE 회원들은 자체적인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대표적인 혁신 및 기술 업체일 뿐만 아니라 활기찬 유럽 클라우드 및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은 다른 주체들의 싸움에 사로잡힌 볼모가 되거나, 전투에서 어이없이 목숨을 잃는 사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만한 언행이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주는 것과 같다.

CISPE 회원들은 유럽 전역 수천 곳의 비즈니스 및 공공 부문 고객들에게 고유하고, 중요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의 업체들이다. 이러한 고객들은 다시 그들의 고객인 수백만 유럽 시민들에게 클라우드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들의 손실은 고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 혁신을 위한 추진력의 상실, 낮은 서비스 품질로 이어질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의욕을 가진 강력하고 혁신적인 유럽의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업체가 없으면 데이터 자주성도 달성하기 힘들어진다. 유럽의 고객들은 함께 나아가며 가치를 공유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가능성이나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CISPE는 전체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산업을 대표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Microsoft의 불공정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사례에 대한 공식 조사와 더불어 클라우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위한 10대 원칙 및 감사 가능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선책의 근거로 고려해 줄 것을 겸허히 요청하는 바이다.